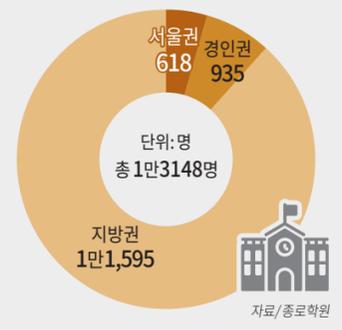


정시 추가합격에도 1.3만명 미달... '인서울'도 618명 못채워

전국 4년제 86% 모집인원 미달
일부 지방대 정원 절반 이상 못채워
서울권 정원 늘어 수도권 집중 가속

정시 추가모집 미충원 인원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최종 추가합격자 등록 마감 결과 전국 169개 대학이 총 1만3148명의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86%가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채우지 못한 입학정원 중 88%가량이 지방 대학에서 발생했지만, 서울에서도 31개 대학이 신입생을 다 뽑지 못했다. 대학들은 오는 29일까지 최종 추가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정시 추가합격 등록을 진행한 결과 정시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전국 169개교로 1만3148명을 추가 모집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모집 규모는 비수도권이 103개 대학에서 1만1595명의 미충원이 발생해 가장 컸다. 이어 경인권 35개교가 935명, 서울권 31개교가 618명 순이었다.

추가모집 규모를 학교당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전국에서 대학당 77.8명이

다. 특히 지방권은 대학당 112.6명, 서울권과 경인권은 각각 대학당 19.9명과 26.7명을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가 2개 대학이 평균 226.5명을 추가 모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장 높다. 이어 ▲전북 7곳 평균 194.6명 ▲경북 9곳 평균 183.7명 ▲전남 8곳 평균 182.3명 ▲광주 9곳 평균 163.3명 ▲부산 13곳 평균 120.7명 ▲충북 10곳 평균 95.1명 ▲서울 31곳 평균 19.9명 ▲대구 2곳 평균 18.5명 ▲인천 4곳 평균 18.0명 순이다. 울산대와 울산과학기술대(UNIST) 등이 위치한 울산은 유일하게 추가

모집 없이 신입생을 채웠다.

특히 일부 지방 대학에서는 수시와 정시 등 전체 모집에서 정원의 78.4%, 75.6%, 60.4%, 58.6%를 선발하지 못하며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서울권에서는 서경대가 11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세종대 53명 ▲한성대 34명 ▲홍익대 31명 ▲국민대 29명 ▲한국외대 18명 ▲한양대 17명 ▲서울시립대 3명 등이 발생했다.

전국 대학 추가모집 인원은 지난해 1만7439명에서 올해 1만3148명으로 4291명에 해당하는 24.6%가 감소했다. 서울권에서 149명, 경인권에서 158명, 지방권에서 3984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방권은 지난해보다 정시 모집정원을 1815명 줄인 게 감소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서울권은 모집정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방권이 모집정원을 축소하며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 모집정원 확대, 의대 모집정원 확대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공간재편 나선다

지하화로 확보한 부지 개발방안 수립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상부 활용·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 공간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내달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해 확보한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 계획인 ‘철도 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서울시가 노선별로 ‘철도 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세운 뒤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국가철도 지상 구간



은 총 71.6km에 이른다. 지상철도는 크게 ▲역사(정거장) ▲주변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형성된 선로 구간 ▲고가 및 철교 등의 형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선제적 공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한다. 내년에는 노선별 공간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노령수당 지급 등 고령화 대응하는 세계정책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상하이, 취약계층 복지정책 시행
홍콩, 노령생활수당 수혜대상 넓혀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노인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5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가 작년 12월 새롭게 내놓은 ‘기본공공서비스표준’에는 임산부와 빈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정책 시행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시는 교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산을 3개월 앞둔 임산부에게 엽산 보충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임산부에

대한 출산 지원 강화에 나선다. 또 향촌 거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기초양로금 지급액을 기존 월 1200위안(한화 22만1940원)에서 1400위안(한화 25만893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홍콩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중이다.

홍콩의 고령자 수는 2010년 83만 6000여명에서 2020년 약 129만 7000명으로 10년 새 55% 넘게 증가했다. 홍콩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1년 20.5%에서 2046년 3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사회복지부는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매월 4060HKD(한화 69만1418원) 수준의 노령생활수당을 제공한다. 소득 기준에 가족·친지의 증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대상자 소유의 부동산 및 가입한 보험 제도의 현금 가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혜 대상을 넓혔다.

한국의 노령연금도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 홍콩의 노령생활수당은 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홍콩 계속 거주 기간이 7년 이상인 노인이고, 소득·자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서울연구원은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초등학교 421곳에 452명 배치
1000명 이상 과대학교엔 2명씩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421곳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희망하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1000명 이상의 ‘과대학교’는 원어민을 2명 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은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된다.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공교육 시작 단계에서의 영어 교육격차 문제 및 이후 심화되는 영어학습 격차문제 해소 및 사교육 경감 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교육청이 시행한 수요조사 결과, 총 421개 기관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희망했으며 교육청은 이를 100% 반영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지난달 22일 각 학교 및 기관에 배치 완료됐다. 신규 선발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95명은 오는 26일 국립국제교육원(EPIK)이 주관하는 7박 8일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학교로 배정받게 된다.

원어민 교사는 3월부터 3~6학년 영어 수업에 투입되며 방학 중에는 영어 캠프 등을 운영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이민관리청 유치에 시민 힘 모아

범시민 서명운동 등 유치활동 돌입

고양시가 법무부에서 신설·추진 중인 이민청 유치를 위해 사뽕달달 고양 특례시는 이민관리청의 최적지라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는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포함한 「제4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고양시는 올해 1월 이민청 유치 본격추진 선언과 함께 TF 구성 및 활동을 개시했다. 고양시의 이민청 유치 당위성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 지난

21일 덕양구청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자매결연도시에서 서한문 발송과 이민청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민청의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추진 및 국외대학 유치 등과 연계한 글로벌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2월 26일(월)
음력: 1월 17일

수도권 날씨
-1 ~ 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09 | 해질 / 18:2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트럼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도 21.5%P 차 압승
▲이집트, 가자지구 칸유니스에 팔 난민 수용소 추가 건설 발표 /사진 뉴시스

▲미-영 연합군, 주말 예멘의 수도 사나 폭격- 후티군 TV보도
▲인도, 야생 코끼리 공격 급증에 ‘안전 울타리’ 설치한다



▲“후티 반군 공격 탓 홍해에 29km 기름 띠 생겨” /사진 뉴시스
▲아랍 최대기구 OIC, 가자 공격에 130명 숨진 기자 보호 요구